

#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16회, 선한 사마리아인

## 의 비유 , 루가복음 10:25-42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여기는 댄 다코 박사와 그의 루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 루가 복음 10:25-42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누가복음 10장 강의에서 기억하실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왔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몇몇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거부했고, 제자들은 즉시 이런 빠른 반응을 보이며, 그들을 거의 저주하려고 하거나,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들을 해칠 수 있는 힘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70명이나 72명을 보내어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가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왔고, 그들은 이 기적들에 대해 매우 흥분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담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처음에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거절당했고, 문제가 뒤따랐고, 그런 다음 그들은 나갔고,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은 기적적인 행위로 극적인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기뻐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변호사가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예수의 법률 전문 지식으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가 이러한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또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대중의 인물을 대중의 무대에서 시험하고 대중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결국 그 인물을 부끄럽게 만들고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라고 부르는 것과 그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변호사가 제자들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시야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나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여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길로 그를 보고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 그를 돌보아 주십시오 .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에게 잡힌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보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적어도 그의 제자들이 여전히 배경, 직접적인 배경,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을 뒤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항상 저주하고 뒤에 남겨두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미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 이 변호사가 와서, 예수께서는 변호사에게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답하려고 하시고, 우리는 마가가 그 특정한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버림받은 자의 지위를 높이고 , 하나님의 왕국에서 참된 제자가 무엇을 수반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마리아인을 다시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실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몇 가지 유사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비유 바로 앞의 시작 부분이 마가복음에서 제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는 분임을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변호사는 율법을 요약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기된 질문을 보고, 이 비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풀어보려고 하면 곧 이것 중 일부를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변호사가 던진 질문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율법 선생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좋은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하나님이지요 주는 유일하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질문은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율법학자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것이었고,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예수를 만나 영생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한 것과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기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동기는 예수를 시험하고, 그의 능력을 보고, 대중 앞에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없고, 누가복음은 이 비유가 예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비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제가 이 특정 비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이 비유에서 다른 것들을 원할 때마다 강조해 왔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특정 우화에 대한 그런 잘못된 또는 오도된 해석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을 나타내는 무언가의 비유로 사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화 전체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종의 경기장으로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교회 지도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인들이 종종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이름의 아프리카 교부 중 한 명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조상 중 한 명이 아프리카 출신인데, 그는 이 우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봅니다. 제 말은, 그는 그것을 매우 심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그의 설교에서, 내가 그의 본문에서 발견한 그의 설교 중 하나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낙원이고, 예리코는 세상입니다. 강도들은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사제는 법입니다.

레위인은 선지자이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상처는 불순종입니다. 짐승은 잃어버린 몸입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여관은 교회입니다. 여관의 관리자는 교회의 수장이며, 여관의 관리가 맡겨졌고,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것을 약속한 사실은 구세주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리 내어 읽는다면, 오늘날의 아프리카에서도 누군가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정 우화에 대한 이상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변호사의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사항을 다시 살펴보고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겠습니다.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크 조합이나 마크 비교 중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것은 변호사와 관련하여 동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동기는 그가 예수를 시험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이것은 또한 예수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기록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율법을 요약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을 요약하게 될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변호사에게 율법을 요약하게 하여 그의 법적 역량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와 달리 핵심 문제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을 사용하여 누가를 해석하지 말자.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율법을 요약하면 세마 ,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가가 누가복음에서 그의 서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종류의 강조, 즉 영생에 대한 질문은 예수가 율법학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온 마음, 힘, 마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이든, 야훼의 참된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간과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야훼의 참된 추종자나 언약에 충실한 추종자가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여기서 그 좁은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약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요약의 관점에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후속 질문으로, 두 번째 줄에서 이웃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에 매우, 이 남자에게는 매우 불친절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잘 관찰하면, 여기서 몇 가지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가와 누가의 신명기 6:5의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이 본문은 네 마음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모두 온 마음을 강조합니다. 저는 현대 오순절파와 카리스마적 경험의 약점 중 하나가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 회원들에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가와 누가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주목하세요: 모든 정신으로,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정신적 능력의 좁은 초점으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맞춰지도록 하세요.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것은 이웃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웃에서, 여러분이 화면을 따라가면서, 저는 이 변호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의 법을 인용했고, 그와 예수는 모두 이 플랫폼에서 일할 것이고, 이웃이 정의되는 좁은 범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레위기 19:17에서, 이 글은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과 솔직하게 변론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18절은 이 법이 명확하게 규정된 곳입니다. "네 백성의 아들들을 원수 갚거나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님이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좁은 범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언약 공동체 구성원, 또는 17절에서 형제로 언급된 사람. 그래서, 변호사는 그것에 대해 매우 편안해합니다. 오, 맞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국이 수반하는 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루크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서 당신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유대인 동포이지만, 잠깐만요. 그 법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법의 실제 실현 또는 실행을 아주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은 당신의 동료 유대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누가복음에서 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두 율법은 신약의 거의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했고, 누가는 율법의 첫

번째 부분이 말하는 것과 두 번째 부분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결합한 유일한 사람인데, 누가는 그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하나로 만든 유일한 사람입니다.

루크는 실제로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상과 이웃의 대상을 강조하며, 이 특정 사건에서 이웃에 대해 언급하고 이웃의 경계를 넓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그의 엘리트 독자인 테오�필로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의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비유의 등장인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전통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이 등장인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으로서, 제가 자라면서 했던 일 중 하나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 우화, 특별한 장면을 좋아합니다. 제 할머니는 살아 계실 때 제게 이야기와 우화를 들려주셨고, 한 가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지 아셨어요. 할머니는 이야기나 우화를 사용해서 제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위해 20분이 걸렸을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두 가지 말씀하시고, 은유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의 우화에 대한 제 해석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한데, 등장인물을 잘 이해해야 하고, 이야기에 사용된 상징을 아주 잘 이해해서 그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등장인물을 살펴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변호사를 고용하실 것입니다. 누가는 변호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하고, 이어서 변호사의 목표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열거하는데, 아마도 그가 매우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한 율법과 레위기의 다른 율법을 해석하는 데 앞장서 있는 율법의 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자란 메시아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볼 것입니다. 또한 비유 속의 희생자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것임을 볼 것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줄거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유대 문헌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 제사장이 예리코에 살면서 1년에 두 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불과 17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서 종교적 순수성의 가장 높은 계층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종교적 엘리트도 이야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레위인을 데려올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스스로를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무엇이 옳은지 구조화하고 강제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인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오, 안 돼.

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듣고 알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비유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마리아인을 미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특정 장의 아주 앞 구절에서 그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저주하고 싶어했습니다. 이 비유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대조를 보여주고 그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가장 높은 형태의 종교적 순수성을 사용하고 싶어했습니다. 글썄요, 우리가 이 비유를 주의

깊게 따르면서 안전과 경건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 있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들어온 동일한 도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순수성입니다. 당신이 사제라면 신학적 구성에 따라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2성전 유대교에서 성전의 대부분 사제들이 사두개인 편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만약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당신의 가족 중 아무도 죽은 사람을 묻을 수 없는 장소가 있다면 시체를 만질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명예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그것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제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대부분의 사제가 사두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사두개인 사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문제는 사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오, 저는 너무 무정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돕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독실해서 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가끔 이 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많이 듣습니다. 사제는 종교적인 사람인데, 더 잘 알아야 하지만 너무 무정하고, 연민이 전혀 없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만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지 몰라도, 이 우화에서 주요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주요 수준은 이렇습니다. 사제는 종교적 순수성을 위해 잠재적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을 만지지 않을 정도로 독실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심 때문이지, 무정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레위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같은 행동 패턴에 따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도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면, 비록 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오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변호사에게 어딘가 뒤에서, 메아리 소리 속에서, 당신이 너무 경건해지려고 노력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당신은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려고 너무 바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종교적 의무를 신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신에 대한 사랑에 너무 집착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왕국에서 이 상실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급진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회적 안전 지대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사제, 레위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피해자의 이름은 없지만, 지리적 위치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피해자는 예루살렘과 예리코 사이에서 강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지형은 피해자가 유대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유대인은 제사장의 이웃이고 레위인의 이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순수성을 위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직책에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마셜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낮은 종교적 관리 계층이었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다른 모든 것이 레위인에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유에서 전개되는 것에 대한 여정의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우리는 지형 면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 예리코로 3,300 피트 하강해야 하는데, 사막과 같은 바위가 많은 지형이 있어서 이런 종류의 실제 상황에서 쉽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연히 제사장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특정 축제를 위해 캐러밴을 타고 여행하지 않는 한 그 길이 때때로 외로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곳이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사람들이 쉽게 강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변호사가 매우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경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인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자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루크가 엘리트 이방인인 테오�필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왕국은 버림받은 자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사마리아인 Cradlock이 잘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와의 전쟁 이후 그 땅을 차지한 혼합된 인구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반대했고, 그리심 산에 그들만의 예배 장소를 건설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사회적으로는 추방당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이단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변호사와 제사장, 레위인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강도에게 희생당했고, 사마리아인이 왔고,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할 일이었습니다.

반대편을 걷는 제사장과 달리, 반대편을 걷는 레위인과 달리, 우리는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무언가를 했고, 상처를 묶었습니다. 그는 응급처치 용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알코올 용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치유제인 기름과 와인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를 했고,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듯, 그는 유일한 교통수단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부상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제, 그런 종류의 당나귀나 말이나 그런 종류의 동물을 타고 여행할 때, 그것은 리무진과 같습니다.

리무진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최신 메르세데스, 캐딜락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는 필요한 시점에 길가에 있는 부상자는 주차하거나 그의 운송 수단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우리는 그 남자가 부상자에게 자신의 동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동물 위에 있는 동안 그는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압니다 .

동물의 좌석이 실제로 누군가가 운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니 변호사의 머릿속에 이런 그림들이 떠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사람과 함께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가 신경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훑어보면, 그가 신경쓴다고 말했을 때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줄 뒤에, 루크는 그가 그를 돌보겠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케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 비유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세요. 예수님과 변호사 사이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웃이고,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길을 갔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줍니다. 나는 그를 돌보라고 했고, 그런데, 그가 두 데나리온을 준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크는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머물 정도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게 바로 케어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잔돈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내 주머니에 구멍을 낼 푼 5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 시간을 주고, 이웃에게 내게 소중한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 이웃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사제조차도 이 특정 피해자를 공격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어쨌든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오, 예수님, 그게 똑똑한가요?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변호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잘 알아야 할 변호사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변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말씀드렸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의 손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보십시오. 변호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기 전에 , 말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루가 복음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문화적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이 중동 문화의 일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대화를 따라갈 때, 말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적인 것입니다. 변호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그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마리아인은 나보다 법을 더 잘 안다.

사마리아인은 나보다 더 율법을 지킬 것이다. 오, 맞아. 예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인정하게 하셨다.

오, 그럼 비유적으로 예수가 그를 찢었군요. 그렇다면, 가서 똑같이 하세요. 변호사님, 가서 사마리아인을 당신의 모델로 삼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점점 더 겪으면서, 피해자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놓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여러분의 동네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당신이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이 지나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신에게서 작은 도움만 필요했을 뿐인데 당신은 다른 방향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놀며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찾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찾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돕지 말아야 하고, 이웃에게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가 심각한 건강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기에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두 명의 십 대가 악기를 들고 이웃에게 가는 매우 감동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웃은 80대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십 대는 이웃과 거리를 두고 앉아 음악을 연주했고, 그동안 집에만 있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들은 연주했고, 저는 뉴스 화면에서 이 영화를 따라가면서 이 나이 든 여성이 미소 짓고, 그들을 응원하고, 낄낄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의 두 십 대가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이웃에게 시간을 주는 데 가치를 두었다는 사실에 그녀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그들의 관대함, 보살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 당신의 이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큰 제자 의식으로 부르십니다.

루크가 제자 훈련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의가 산만해져 주요 요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변호사를 다룬 후, 그는 마르다의 집에서 그의 친구 두 명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바쁘게 요리할 준비가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주는 모든 지시를 듣기로 선택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환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환대에 대한 의무가 없었던 마리아는 또한 손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르다를 비난하지 않고 마리아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배우고, 무엇보다도 예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학습의 관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이전 기록에서 놓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우리가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격려하십니다. 루크 티모시 존슨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험에 대해 논평한 말에서, 존슨은 마르다에게 한 예수님의 대답이 환대에 필요한 한 가지는 집안일보다는 손님에 대한 관심임을 분명히 한다고 적었습니다.

손님이 선지자라면, 적절한 환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훈은 모든 손님에게 암묵적으로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선물을 받는 것으로 요점을 멋지게 바꾸셨습니다. 우리 공간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은 은혜의 사자이고, 아마도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신의 비유에서, 예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며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도전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신의 세계에서 제자도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주제에 따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참된 제자가 예수님의 예언적 음성을 듣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루가 복음을 통해 함께 배우면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저는 여러분이 배우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열기를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 즉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희 강의 시리즈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댄 다코 박사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가복음 10:25-42입니다.